

# “도심사찰 현대화 외형만 치중”

### 홍광표 교수 사찰조경학 학술회의서 주장

#### “부지매입 애로 고충화” “문화공간 역할 필요”

— 조정식 교수 —

지난 82년 불광사(서울시 송파구 소재) 개원을 기점으로 도시의 중심이나 번두리에 현대식 사찰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사찰 건축 및 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수행, 예배, 포교’라는 사찰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지은 도심 사찰의 예를 찾아 보기 힘들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인식은 13일 ‘현대 도시 사찰의 이해와 불사 방향’을 주제로 열린 동국대 부설 사찰조경연구소의 제4회 정례 학술회의에서 비평적인 현대 도심사찰의 조경’을 발표한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이 논문에서 홍 교수는 “건축 자체만 현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전통사찰의 상징과 기능 외에도 도심 공원으로의 역할을 담아야 할 수 있는 도심 사찰 건축의 원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도심 사찰은 건축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관과 그 공간 활용에도 적잖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도심 사찰 대부분이 외부 공간을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의 도심 사찰들은 수행과 예배 이외에 도심 속의 휴식처로서, 불자의 모임이나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 포교 활동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찰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수 있는 건축 자체나 조경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과 다를 바 없이 철근콘크리트나 회화석



◇홍광표 교수



◇조정식 교수

으로 지은 사찰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도시 사찰의 위상 정립을 위한 건축적 접근’을 발표한 조정식 교수 역시 “도심 사찰은 기존의 전통사찰이 갖고 있는 예배의 수행의 장소라는 성격 외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필연적인 요구조건”이라며 “도심 사찰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설계의 원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도심 사찰을 짓기 위해 우선 고가(高價)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고층”만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

래고 있다. 즉 ‘사찰이란 넓은 장소에 다양한 상징물이 있는 곳’이라는 일반인들의 개념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건축된 도심 사찰들은 기와 지붕이나 열주 등과 같은 전통사찰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심 사찰 건축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현대 불교 건축의 원형을 전통적 불교 교리에서 찾되 단순한 복제나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먼저 사찰의 현대화에 대한 관련 학계의 논의가 있어야 하고, 스님들은 이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김개천(이도건축 대표) 씨의 ‘현대 도심 사찰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최용천(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씨의 ‘도시사찰의 불교 공예’, 손연철(동국대 미술학과 교수)의 ‘불교 미술의 현재와 미래’ 등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학술기행 申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 장보고의 적산법화원 새단장

#### 판교진에서 숙성촌까지

조영록 <동국대 교수>

우리 중국불적답사팀 19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8박 9일간 산동성 한국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산동반도는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대로 양국 간의 불교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진 곳이다. 신라의 화엄종조 의상대사나 고려의 천태종조 대각국사가 이곳으로 상륙하였으며, 9세기 동아시아 세계에 강력한 해상세력을 행사하던 장보고도 여기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적산 법화원을 건립하였다.

#### 고려정관 기념비 제막

우리는 주로 이들 불적을 중심으로 하되 태산, 곡부(곡부)와 같은 명승지도 포함하여 되도록 한국 관련 유적지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탄 중국인항은 1시 30분, 한시간이 채 못 걸려 청도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번 답사에서 한가지 특기할 일은 12월 25일, 교주시(膠州市)에서 고려정관(高麗正觀) 기념비의 제막식에 우리를 초청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다. 교주시는 대각국사가 상륙한 옛 판교진(板橋鎮)이며, 고려정관이란 북송시대 고려사신이 상륙하면 그들을 맞아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소이다. 교주시에서는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고자 일년 전부터 이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일행의 답사기간에 맞추어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판교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우리의 답사는 26일과 27일은 적산 법화원과 등주(登州)지역으로 옮겨왔다. 판교진에서 위해까지는 동북방으로 3시간 반이 소요된다. 필자는 6.7년 전에 적산 법화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신문이 새로 서고, 대웅전 뒤로 법화원이라는 환관을 단 웅장한 건물이 들어섰다.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를 맞아 차를 대접하였다. 주지 스님은 구화산 방장 인덕(仁德) 스님의 상좌라고 하니 간접적으로나마 한국과의 친분이 있는 셈이다. 다음날 아침 답사단은 등주를 향했다. 당대 전기까지의 등주(登州)는 해상교섭의 중심지로서 신라왕이 있었다고 전한다. 부슬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해안에 자리잡은 봉래각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며 옛적 의상대사가 하산하여 묵었을 곳을 찾아보았다. 오후에는 등주에서 발해를 따라 내륙으로 8시간 반이 걸려 제남(濟南)에 도착



하였다. 이 길은 아마도 의상대사가 등주에서 장안으로 갈 때 지났을 그 길일 것이다. 28일과 29일 양일은 제남에서 아래로 태산과 곡부(曲阜)를 차례로 지난다. 동아시아 한문화권에서 영산으로 여겨 온 태산의 등정은 날씨가 화창하여 우리를 마음을 한결 명랑하게 해주었다. 오를 때는 다도가 박동춘 씨의 ‘태산이 높다하되’ 시조창이 일품이더니, 내려올 때는 동림(해립사 주지) 스님이 산상에서 산 목탁을 치며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지연(원사 주지) 스님이 다리나경으로 화답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정진심을 나게 했다. 태안시 산기슭에 위치한 보조사(普照寺)를 찾아 조선 초기의 고승으로서 태산 불교를 중흥한 운공(雲公)의 공덕비를 확인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다음날 공



답사 경로

림(林)을 참관할 때도 스님의 목탁소리가 울려 퍼져 진기한 장면을 이루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공자의 묘소 앞에 이르자 특별한 의도도 없이 스님이 선행하고 우리는 뒤를 이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니 그야말로 불교와 유교가 일치하는 듯한 뜻깊은 장면이었다.

#### 시조 읊으며 태산 올라

29일 늦은 점심을 임기(臨沂)에서 먹고, 저녁 무렵 강소성 연운항(煙臺港)에 도착하였다. 연운항은 옛 해주(海州)로서 위로는 교주로 통하고, 아래로는 화안(淮安) 양주(揚州)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다. 30일 아침, 해안으로 옛 신라방이 있었다고 하는 속성촌(宿城村) 답사에 나섰다. 별다른 자취는 찾아 볼 수 없고, 이웃한 시가지에 한 국음식점 건립만 보일 뿐이다. 속성촌 답사 후 해안을 따라 북으로 차를 몰아 일조시(日照市)에서 점심요기를 하고 대주산(大珠山)과 교남시(膠南市)를 지나 교주만에 다다랐다. 이 해안은 우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서 최치원과 대각국사, 그리고 일본의 구법승 엔인이 여기를 지나 다니면서 남긴 시문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 전자문화지도에 ‘한국불교’ 담는다

### 홍콩 ECAI회의 대장경연구 등 프로젝트 발표

가상공간에서 전자문화지도를 클릭하며, 한국의 불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이카이 코리아(ECAI Korea)는 15~20일 홍콩에서 열린 전자문화지도추진위원회(이하 ECAI) 회의에 참석하고,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ECAI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점검했다.

ECAI란 96년 루이스 랭카스터교수(미국 버클리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세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예술, 전적, 종교, 생태학, 철학 등을 지역이나 시대별로 전시화하고 이를 전자지도 위에 표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남아

시아, 러시아, 실크로드 등 13개 나라와 단위 지역에서 1백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종필 스님,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허인섭(동국대 강사) 박사 등 고려대장경연구소 측과, 이해은(동국대), 성효현(이화여대), 심재홍(서울대) 교수 등 이카이 코리아 측이 참여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고려대장경 2000’을 시연 발표했고, 이어 ‘한국불상-시험버전’을 발표했다. ‘한국불상’에는 국내 30여 개의 국보급 불상에 대한 정밀 측정 자료는 물론 얼굴, 손, 발, 옷주름, 앉은 자세 등 모양까지 세분화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것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올린 자료들이 제공됐다.

이카이 코리아는 설화·판소리·무속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김홍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교수의 ‘구비문화’, 원호 지눌·서산·민해·경허 등을 비롯해 한국의 위인을 전시화하고 있는 심재홍 교수의 ‘성인전’, 윤이홍 교수의 ‘종교문화’ 등을 발표했다. 이해은 성효현 교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정확한 경도와 위도를 산출해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카이 코리아의 문화 인프라를 전자지도에 올리는 방법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김홍규 교수는 “불교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불교학·철학·지리학·역사학 등 모든 영역의 불교 관련 성과를 응집시킬 수 있는 사이버 대각불사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충주시 3월부터 김생사지 발굴

신라의 명필로 해동서성(海東書聖)이라 불렀던 김생이 창건한 사찰 터로 추정되는 김생사지가 3월부터 발굴된다. 충북 충주시는 김생사지가 도 기념물(제114호)로 지정됨에 따라 6천여 만 원을 들여 발굴기로 했다.

충청대 박물관이 지난해 7월 지표를 조사한 결과, 1만 1천 738㎡

에 이르는 사지에서 항아리 형태의 석조물과 탑의 부재로 각종 석재, 길이 124cm, 높이 52~90cm의 석축 등을 발견했다.

충주시는 우선 김생사지에 대한 정밀 발굴 작업을 실시한 후, 명문기와와 같은 김생사지임을 입증하는 유물이 발굴될 경우 국가 사적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생사지 지표조사 모습.

### 제 1기 禪友募集

마음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如來禪) 전문 수행처.

**근본불교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pia Meditation Center

서울 ·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Fax : 02)512-4406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 · Seikantha New-Dagon Yangon Myanmar  
E-mail : buddhapia @hanmail.net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 (민족사)  
빈손도 내려 놔라 (출판예정)

피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세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하여 쉽 없이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 수행일정표

서울	예비기초반	매주 火, 木 - 오전 11:00~12:30
서울	일반수행반	매주 月, 水, 金 - 오전 10:30~12:30, 저녁 7:30~9:30
	토요정진반	매주 土 - 오후 5:00~9:00(경전 강설 1시간)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火, 木 - 저녁 7:00~9:30
	절야정진반	매월 셋째 토요일 - 저녁 8:00~익일 03:30

토요정진반은 평송정(천사경전의 계승)과 송평정을 강설 시기에 이어 정진

■ 선원 오는 길  
서울 센터 :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40M 근  
대구 센터 :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250M 근  
미얀마 센터 : 양곤의 신도시의 뉴타운에 위치 (직접 문의)

오직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선우들만을 위한 시민선반입니다.  
우선 선배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혹은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북만 작업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만 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 교재, 회비무료, 단, 천도제, 일일제사 사절 ▶

法山 붓다띠야 승사

순수한 경만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宇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신년시대 용의 몸을 구세요!”

佛 龍 雲 龍 佛 宇 體

승곡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용자 말마(말마대사) 그림, 용자 그림(수맥과 자단) 특별보시!

2000년 대동명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 및 방자 총연합회 인준 100% 효과

복사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art-gallery.org (korea art gallery)

사업실제, 가정분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0058  
E-mail : unjang21@kom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관음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 法華三部經講院

▶ 男 · 女 통신반 募集 ◀

- 募集期間 ■ 전기 :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연수)
- 募集課程 ■ 佛經漢字 한문 교육과
- 入學資格 ■ 불교 최고의 경전을 연구 하고자 하는 자  
■ 불교 교육자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 教育期間 ■ 3년(6학기) 통신반·출강반 동일
-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1회 대구 강의실에서 특강
- 卒業惠擇 ■ 수학중서 수여  
■ 교적자 자격증 수여(심사후)  
■ 법학수행교육원 개원시 적극 지원(심사후)  
■ 평생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심사후)

지제한 입학 안내서는 응서로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崔光永 崔福교수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우편번호: 701-600)

法華三部經講院  
053-952-8711 / 017-501-8711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혜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 승복·법복·누비·바탕판매인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성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용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운운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 바탕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계 가사 분사 보시하든 누복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계 평안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저고리	남	130,000
바지, 조끼	남	
누비	남	180,000
(상, 하)	남	
누비방한복	남	130,000
(상)	남	
누비조끼	남	60,000
	남	
누비방망	남	180,000
(두루마)	남	
바탕	남	30,000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 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